

장흥 선학동마을, 유엔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 후보 선정



현대문학 거장 이청준 작가 소설 '선학동나그네' 배경 봄 유채꽃·가을에는 메밀꽃으로 유명...문학길 조성

장흥군 회진면의 선학동마을이 '제4회 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의 대한민국 대표 후보 마을로 선정됐다.

유엔관광청(UN Tourism, 구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는 지속 가능한 지역 관광 개발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불균형 등 세계 공통 과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전남에서는 신안군과 화순군에 이어 장흥군이 3번째로 '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에 도전한다.

선학동마을은 현대문학의 거장 이청준 작가의 소설 '선학동나그네'의 배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를 원작으로 한 임권택 감독의 영화 '전년학'의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메밀꽃으로 유명하고, '문학관광기행특구' 지역답게 마을에는 문학길이 조성되어 있다.

2007년부터는 '금빛·은빛 가득한 선학동 마을'이라는 마을 공식 소통 사이트를 만들어 마을 관련 소식과 발전 과정을 기록하며 마을을

알리기에 나서고 있다.

선학동마을은 견고한 마을 운영 체계를 확립시켜 '전남 행복마을 만들기 마을경관 환경분야 최우수상' 수상, 한국관광공사 '봄 시즌 비대면 안심 관광지 25선' 선정, SRT '올해 최고의 여행지 10곳' 선정 등 많은 성과도 남겼다.

장흥군에 따르면 2월 말 ~ 3월 초 현장 답사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4월 말 유엔관광청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9-10월 중 발표된다.

김성 장흥군수는 "선학동마을이 'UN Tourism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되면 장흥군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국제적인 인지도를 얻게 될 것"이라며,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완도군, 해양 기후·문화 치유프로그램 만 원에 즐기세요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이용 요금 할인...노르딕워킹 등 인체 오감 활용 프로그램 진행

완도군이 해양기후와 해양문화 치유프로그램을 만 원에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3월 4일부터 19일까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임시 휴관함에 따라 휴관 기간 동안 주민과 관광객이 다양한 해양기후·해양문화 치유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해양기후를 활용한 해변 노르딕워킹과 시청각(미디어 아트), 후각(비누·

캔들 만들기), 촉각(조개 모빌·자개 악동 만들기), 미각(유자 마들렌, 해초 롤 만들기) 등 인체 오감을 활용한 해양문화 치유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운영일은 해양치유센터 휴관 기간 중 화, 목, 토요일 주 3회이며, 해양기후는 1시부터 해양문화는 2시에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이용 요금은 이벤트 기간 동안 대인(만 12세 이상) 10,000원, 소인 6,000원이다. 참여 신청은 완도군 해양치유담당관 센터

운영팀(061-550-7693)으로 프로그램 이용일 전날 오후 4시까지 해야 하며, 참여자가 5인 이상이어야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한편 해양기후 치유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해양문화 치유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운영되며 참여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치유 1번지, 치유의 섬 완도에서 색다른 체험을 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진도군,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 운영

의료취약지역 의료격차 해소와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진도군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전남 건강버스'는 보건소 방문보건 전담팀과 강진의료원 인력 등이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대형버스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고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순회진료를 하는 사업이다.

진료는 ▲혈압·혈당 측정 기호검사 ▲체지방·심전도·골밀도 검사 ▲구강검진 ▲한방진

료 ▲건강상담 등을 함께 진행한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심뇌혈관질환 교육, 국가암검진 홍보 등 다양한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 11월 시범 운영으로 시작했고 올해는 분기별로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1분기 사업량은 관내 경로당 4개소로, 월 1-2회 경로당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도=조성용 기자

해남군 군민광장에 바닥분수 들어선다

물놀이 공간 리모델링 조명·음악분수로 야간 볼거리도 제공, 울 하반기 완공

해남군이 청사 앞 군민광장에 바닥분수를 조성한다.

해남 군민광장은 지난 2002년 조성된 원형 분수대 등이 있으나, 20여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고, 신청사 개칭 이후 친수공간으로서 접근성에 한계가 있어 군민친화형 열린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바닥분수 조성은 군민제안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는 숙원사업으로 기존 분수대를 바닥형 분수로 리모델링 하고, 안전성을 개선해 군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친수형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특히 바닥분수는 조명과 음악이 분수 물줄기와 동시에 제어되는 최신 공법으로 조성될 예정으로, 물놀이는 물론 물과 빛, 음악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여 군민은 물론 관광객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힐링 명소로 운영할 방침이다.

현재의 원형분수를 해남군화인 동백꽃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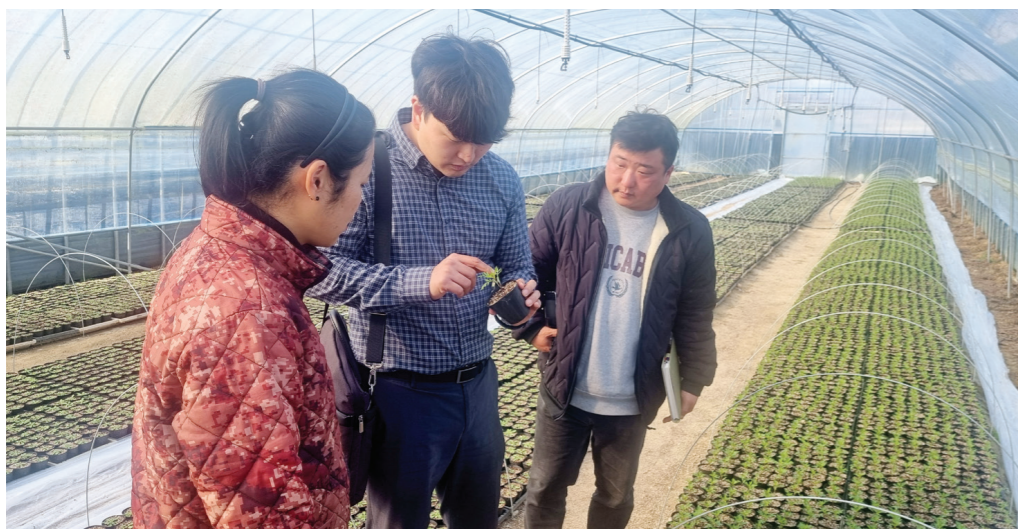
티프로 한 등근모양의 바닥분수로 바꾸고, 아래쪽으로 물길이 이어진 선형분수도 바닥을 보강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한편 조명과 음악이 함께하는 총 65m 길이의 바닥분수를 조성하게 된다. 조성공사를 2024년 3월 착공해 8월경 준공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바닥분수 조성으로 군민광장이 더욱 사랑받는 힐링과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강진군, 꽃도시 조성...봄맛이 나서

농가 맞춤형 기술지도로 고품질 초화 25만 본 배부



2월 27일 칠량면의 봄초화 위탁농가에서 우량 꽃묘 생산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강진군이 봄꽃 가득한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영아)는 꽃향기로 생동하는 강진을 만들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자체 생산 및 농가 위탁 생산을 통한 총 25만 본의 봄꽃을 실과소 및 읍·면사무소, 사업소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1차 배부용 봄꽃은 3월초 팬지, 크리스세멈 13만 본, 2차 배부는 3월 중·하순 메리골드, 페츨니아, 백일홍 12만 본 등이다.

강진군농업기술센터는 사계절 꽃묘를 생산해 매년 40만 본 이상의 꽃묘를 분양해 왔으며 육묘장의 한계로 부족한 생산량 증대를 위해 농가에 위탁해 꽃묘를 생산하는 초화 위탁 사업을 201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초화 10개소, 국화 8개소로 위탁 농가를 대폭 늘려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꽃묘 구입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김영일 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